

제2권 구속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2권 6편 십계명 1 · 서론과 1~4계명

제2권 8장 2절 끝부분~31절 앞부분 (존 칼빈 『기독교강요』 생명의말씀사 세계기독교고전 상, 451~484쪽)

? 십계명은 “나쁜 짓만 안 하면 되는” 규칙표일까, 아니면 내 마음과 예배를 통째로 요구하는 말씀일까?

 흐름 한눈에

칼빈은 먼저 율법이 무엇을 하는지 정리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 주고, 우리의 무능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긍휼로 달려가게 하며, 약속과 경고로 우리를 순종으로 이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완전한 의의 기준이므로, 사람이 지어낸 선행과 의식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2~5절). 이어서 십계명을 바르게 읽는 세 가지 원리를 세웁니다. 율법은 겉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겨냥하고, 각 계명은 목적을 따라 넓게 읽어야 하며, 두 돌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뉩니다(6~12절). 그 위에서 머리말과 1~4계명을 하나씩 풀어 갑니다. 하나님만 섬기라(1계명), 내가 정한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라(2계명), 그 이름, 특히 맹세에서 그 이름을 가볍게 쓰지 말라(3계명), 내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쉬라(4계명). 이 편은 안식일 해설 중간(31절)에서 끊기고,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절별 정리

 2. (끝부분) "할 수 없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이 발췌는 2절의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창조주께 등을 돌리려는 게 아니라면, 삶 전체에서

우리는 갚을 돈이 없는 채무자처럼 “나는 능력이 없다”고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하나님은 여전히 의의 친구이고 불의의 원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욕망을 붙잡아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그 악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1. 참된 예배는 의·거룩·순결을 지키는 것
2. 하나님의 기준을 내 능력에 맞춰 낮출 수 없다
3. 하나님은 언제나 의의 친구, 불의의 원수
4. 순종 못 하게 막는 죄도 결국 내 책임

로마서 6:12

죄가 우리 욕망을 지배하는 상태를 묘사한다. 그래도 그것이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논증의 배경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 우리의 죄, 순종의 필요를 배움 (3~5)

3. 율법의 인도를 받으면 생기는 두 가지 결과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보여 준 다음에는, 같은 율법을 따라 우리 자신 속으로 내려가 봐야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 내 행실을 율법의 의와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커녕 피조물의 자리에 있기도 부끄러운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둘째, 내 능력을 살펴보면 율법을 지키기에 약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덕을 믿지 못하게 되고, 양심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절망합니다. 이 두려움과 절망에서 겸손과 자기 낮춤이 생깁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만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자기 밖에서 오는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2. 내게는 율법을 지킬 능력 자체가 없다
3. 두려움과 절망 → 겸손과 자기 낮춤
4. 그 끝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피한다

4. 약속과 위협

하나님은 사람들이 의를 존경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율법에 약속과 경고를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지성이 어두워서 선의 아름다움만으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상을 약속하며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반대로 불의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경고하십니다. 약속과 경고는 현세의 복과 재난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까지 포함합니다. 형벌에는 악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순결이, 약속에는 의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놀라운 너그러움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빚진 존재라서, 순종은 빚을 갚는 일일 뿐 상 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은 자기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시는 것입니다. 약속이 실제로 무엇을 주는지는 “적절한 곳”에서 더 다루겠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1. 선의 아름다움만으론 움직이지 않는 우리
2. 그래서 상(약속)과 벌(경고)을 덧붙이심
3. 약속·경고는 현세와 영원 모두에 걸침
4. 순종은 빚 갚기, 상 받을 공로가 아님
5. 그래도 상을 주심 = 하나님이 권리를 포기하심

레위기 18:5

“행하면 살리라”는 약속. 칼빈은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리킨다고 본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에스겔 18:4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 18:20

같은 경고를 반복하는 구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26:3-39

현세의 복과 저주를 길게 나열한 예

³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⁵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⁶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⁷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앞드러질 것이라 ⁸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앞드러질 것이며 ...

신명기 28장

현세의 복과 저주를 나열한 또 하나의 예

¹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²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삼가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³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⁴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⁵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⁶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

5. 율법만이 완전한 의의 기준이다

하나님은 율법의 모든 부분을 자기 뜻과 연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려고 온갖 예배 의식을 지어냅니다. 경건한 척하는 불경건은 인간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어느 시대에도 나타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선행'이라 부르는 목록에서 율법의 계명은 한쪽 구석만 차지하고, 사람이 만든 규칙이 거의 전부를 채우게 됩니다. 모세가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본 것을 잊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방자함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도 멈추지 않았고, 우리도 똑같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칼빈의 처방은 이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한 의를 가르치려고 주어졌다. 하나님 뜻에 맞는 것 말고 다른 의는 없다. 새로운 행위를 고안해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는 시도는 쓸모없다. 율법 밖에서 해매는 열심은 참된 의를 욕되게 한다. 칼빈은 순종을 모든 덕의 어머니이자 근원이라고 부른 아우구스티누스(4~5세기 교부)에게 동의합니다.

1.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
2. 사람은 자기 방식의 예배를 지어내려 한다
3. 율법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4. 율법 밖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함

신명기 12:28

명령을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 순종이 하나님 앞의 선임을 보여 준다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신명기 12:32

명령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사람이 고안한 규칙을 막는 핵심 구절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순종에 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생각하며 영적으로 이해해야 함 (6~10) ^

6. 율법은 영혼에 관한 것이다 ^

개별 계명을 다루기 전에 칼빈은 세 가지 읽기 원리를 세웁니다. 그 첫째는 율법이 겉모습의 정직만이 아니라 속사람의 영적인 의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새기는 사람은 드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이 살인과 도둑질을 금하는 법을 내리면, 마음에 살의가 있어도 행동하지 않는 한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법은 겉으로 드러난 사회 질서만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까지 보시는 영이시므로, 살인 금지는 분노와 미움의 금지이고 도둑질 금지는 탐심과 사기의 금지입니다. “사람의 법도 의도를 따진다”는 반론에 칼빈은 동의합니다. 다만 사람의 법은 드러난 의도만 따질 뿐 숨은 생각은 파헤치지 못한다고 답합니다. 많은 사람이 손발로는 계명을 지키는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살기와 정욕과 탐욕을 품습니다. 바울이 “율법은 신령하다”고 한 것은 율법이 영혼과 지성과 의지의 순종까지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1. 사람의 법은 행동, 하나님의 법은 마음
2. 분노·미움 = 살인, 탐심 = 도둑질, 정욕 = 간음
3.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영혼에게 말씀하신다
4. 손발로 지키는 척은 순종이 아니다

7.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바른 뜻을 되찾으셨다

마음까지 요구한다는 해석은 칼빈이 새로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율법 해석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가장 위험한 오류로 꾸짖으셨습니다. 음란한 눈으로 보는 것이 간음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며, 마음에 품은 분노나 욕설도 심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세 같은 '새 입법자'로 보고, 그분이 모세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복음의 율법'으로 채우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칼빈은 이 생각이 하나님의 율법을 깎아내리고, 구약 성도들의 경건을 위선처럼 만들며, 유일하고 영원한 의의 기준을 버리게 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에 무엇을 더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흐려진 율법을 깨끗한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셨습니다.

1. 칼빈의 해석 = 그리스도의 해석
2. 바리새인: 겉으로 안 어기면 지킨 것
3. 그리스도: 마음의 분노·음욕도 죄
4. 그리스도는 새 법을 준 게 아니라 회복하심

마태복음 5:28

음란한 눈으로 보는 것도 간음이다. 율법이 마음을 거냥한다는 증거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15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 칼빈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같은 흐름으로 함께 인용한다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마태복음 5:21-22

분노·불평·욕설에도 심판이 있다. 살인 계명이 마음까지 미친다는 증거다

²¹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²²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16:6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율법을 더럽힌 거짓 가르침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마태복음 16:11

같은 경고를 반복하는 구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8.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는 지침

둘째 원리는, 모든 명령과 금지에는 문자로 표현된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레스보스의 잣대'처럼 마음대로 휘어 성경을 내 입맛대로 늘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을 이해할 희망이 사라집니다. 거의 모든 계명에 제유법(대표적인 것 하나로 전체를 가리키는 말하기 방식)이 쓰였으니,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우스워집니다. 문제는 '얼마나' 넓혀 읽느냐입니다. 칼빈이 내놓는 최선의 기준은 그 계명을 주신 목적을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사람들을 존중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1계명의 목적은

추론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의 반대는 미워하시는 것이고, 명하시는 것의 반대는 금하시는 것입니다.

1. 계명은 문자보다 넓다
2. 그러나 마음대로 늘리면 안 된다
3. 기준: “이 계명은 왜 주셨나?”
4. 명령의 반대는 금지, 금지의 반대는 명령

출애굽기 20:2-3

1계명 본문. 계명의 목적(하나님만 경배)을 보여 주는 예다

- ²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³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신명기 6:4-5

한 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1계명의 목적을 확인한다

- 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⁵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위를 사랑하라

9. 명령과 금지의 바른 의미

앞 절의 마지막 원리는 낯설게 들릴 수 있어서 칼빈이 따로 확인합니다. 선을 명령하면 그 반대인 악을 금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악을 금하면 반대되는 의무를 명령한다는 것도 대체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악을 저지르지 않는 것'을 덕이라고 부릅니다. 칼빈은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악의 반대가 되는 의무를 실제로 행해야 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단지 해치지 말고 해칠 마음을 품지 말라는 뜻에 그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이웃의 생명을 지키도록 모든 도움을 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해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니, 이 계명은 생명을 지키는 사랑의 행동까지 요구합니다.

1 “악 하면 된다”가 아니라 “반대를 행하라”

3. 계명의 목적을 보면 의미가 밝아진다

10. 계명에 제유법을 쓰신 이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반쪽짜리 계명'처럼 암시만 하시고 뜻을 다 풀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칼빈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죄의 더러움이 또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육체는 늘 그럴듯한 변명으로 덮어 버리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죄 가운데 가장 끔찍한 형태를 대표로 내세워 우리가 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은 죄는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와 미움을 그냥 분노와 미움이라고 부르면 별것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살인'이라는 범주에 넣어 금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제대로 보게 됩니다.

1. 가장 끔찍한 죄를 대표로 내세우심
2. 이유: 우리는 작은 죄를 변명으로 덮으니까
3. 분노를 '살인'이라 부르실 때 무게가 보인다

십계명의 두 돌판과 구분법 (11~12)

11. 율법의 두 돌판

셋째 원리는 율법을 두 돌판으로 나눈 의미입니다. 첫째 돌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의 의무를, 둘째 돌판은 사람을 대하는 사랑의 의무를 다룹니다. 의의 첫 기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나머지 의는 무너진 건물의 잔해처럼 흩어집니다.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사람을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칼빈은 신앙 없는 의를 머리 잘린 시체를 아름답다고 전시하는 것에 빗댁니다. 신앙은 몸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몸 전체에 생기를 주는 영혼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끼리의 공평과 사랑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1. 첫째 돌판: 하나님 예배 (경건)
2. 둘째 돌판: 이웃 사랑 (사랑)
3.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의가 무너진다
4. 신앙은 의의 '영혼'이다
5. 예수님의 요약: 하나님 사랑 + 이웃 사랑

누가복음 10:27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돌판의 구분을 주님이 확인하신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마태복음 22:37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돌판의 요약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39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둘째 돌판의 요약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앙이 없이는 아무리 의롭다고 떠들어도 다 헛된 것이다.”

12. 십계명을 나누는 방법

율법 전체는 두 부분에 담겨 있지만, 하나님은 변명할 틈을 없애시려고 그것을 열 계명으로 자세히 풀어 주셨습니다. 이 구분을 알아 두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카빈은 이것이 가장 처음으로 판단한 문제이고, 첫째 헌약이 뒷면이 아니라면 앞면이

않습니다. 첫째 방식은 첫 돌판에 세 계명, 둘째 돌판에 일곱 계명을 넣습니다. 이 방식은 형상 금지 계명을 빼거나 1계명에 합치고, 대신 10계명(탐내지 말라)을 둘로 쪼갭니다. 칼빈은 이것이 초기 교회에는 없던 방식이라고 봅니다. 둘째 방식은 첫 돌판을 네 계명으로 보지만, “나는 너를 인도해 낸 여호와다”라는 머리말을 1계명으로 씁니다. 칼빈은 이 머리말을 율법 전체의 서문으로 보고, 첫 돌판에 넷, 둘째 돌판에 여섯 계명을 둡니다. 근거로 오리겐(3세기 교부)과 아우구스티누스(보니파키우스에게 보낸 편지), 마태복음 미완성 주석의 저자를 듭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곳에서 '3'이 삼위일체를 드러낸다는 이유로 첫째 방식을 좋게 보았는데, 칼빈은 그 이유가 약하다고 평가합니다. 요세푸스(1세기 유대 역사가)는 다섯 대 다섯으로 나누었지만, 이것은 경건과 사랑을 섞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부모 공경을 둘째 돌판에 두신 것과 맞지 않습니다.

1. 계명이 열 개인 것은 확실, 나누는 법은 열려 있음
2. 구분 차이로 싸우지 말라
3. 칼빈: 머리말 + 첫 돌판 4 + 둘째 돌판 6
4. 형상 금지를 지우고 10계명을 쪼개는 방식에 반대
5. 5:5 구분은 주님의 말씀으로 반박됨

마태복음 19:19

주님이 부모 공경을 이웃 사랑과 함께 말씀하신다. 5계명이 둘째 돌판에 속한다는 근거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개별 계명의 상세한 해설 (13~50)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2-3)

13. 율법의 머리말

첫 문장(“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을 1계명의 일부로 보든
 따로 떼어 보든, 율법 전체의 머리말이라는 점만 인정하면 칼빈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법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법이 무시당해 버려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말에서 세 가지 근거를 대십니다. 첫째, 자신에게
 명령할 권위가 있음을 밝혀 백성이 순종해야 할 이유를 주십니다. 둘째, 은혜의
 약속을 보여 주어 그 달콤함으로 거룩을 향한 열심을 일으키십니다. 셋째, 이미 베푼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고, 그 은혜에 응답하지 않으면 배은망덕을 꾸짖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권위와 정당한 통치를 가리킵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으니 만물이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벗어나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1. 머리말 = 율법이 무시당하지 않게 하는 장치
2. 근거 셋: 권위, 은혜의 약속, 베푼 은혜
3. '여호와' = 정당한 통치권을 가진 분
4. 그분 없이 존재할 수 없으니 그분께 순종

로마서 11:36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뒷받침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14.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명령할 권한이 있는 분임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억지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려고 “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교회의
 하나님이심을 밝혀 다정하게 이끄십니다. 이 표현에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이라는 서로 간의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신 사실을 근거로 족장들의
 영생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택하신 목적은 현세의 복만이 아니라
 내세의 보은 주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곳곳에서 “너희는 내 기억의

백성이니 계명을 지키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말라기는 같은 근거로 “내가 아버지라면 공경이 어디 있느냐”고 꾸짖습니다.

1. '네 하나님' = 강요가 아닌 관계의 초대
2. 하나님과 백성은 서로에게 속한 관계
3. 택하심의 목적은 영원한 복까지 포함
4. 그분의 백성이니 거룩하게 살아야

예레미야 31:33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 상호 관계를 보여 준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22:32

주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로 족장들의 영생을 증명하신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신명기 7:6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신명기 14:2

같은 택하심의 선언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택하신 백성이니 명령을 지켜야 한다

18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19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레위기 11:45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관계에서 나오는 요구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라기 1:6

아버지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공경이 어디 있느냐는 꾸짖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5.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제 하나님은 자신이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배은망덕은 혐오스러운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더욱 감동해야 마땅합니다. 출애굽은 대대로 기억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노예에서 풀어 주신 목적은 그들이 기꺼이 자신을 예배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은 특정한 칭호로 자신을 알리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신'이라는 말만 들어도 온갖 헛된 상상에 휩쓸리기 때문입니다. 이 칭호들은 우리가 새로운 신을 지어내지 못하게 둘러친 울타리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분, 그룹 사이에 계신 분으로 부른 것도 하나님을 한 장소나 한 민족에

영적 노예 상태를 미리 보여 주는 그림(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마귀의 족음의 권세에서 해방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그분의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고, 그분의 자비에 기대어 영생을 바라야 합니다.

1. 해방의 목적 = 기꺼이 드리는 예배
2. 하나님의 칭호는 우상을 막는 울타리
3. 장소·민족에 가두는 말이 아니라 언약의 표시
4. 애굽 종살이 = 우리의 영적 노예 상태
5. 지금도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신다

출애굽기 3:6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칭호.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방식이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모스 1:2

하나님이 시온(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신다는 표현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 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박국 2:20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표현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시편 80:1

'그룹 사이에 계신 분'이라는 칭호

요셉을 양 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यो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사야 37:16

같은 칭호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6. 제1계명

율법의 권위를 세우신 뒤 하나님은 1계명을 주십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뜻만이 백성 가운데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경건과 미신을 멀리하고 참된 경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님께 속한 것도 함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 그분께 돌릴 것을 다른 존재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칼빈은 하나님께 돌릴 것을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① 양모: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리는 존경과 예배이며, 양심을 율법에 굴복시키는 것도 포함합니다. ② 신뢰: 하나님께 모든 지혜·의·능력·진리·선하심이 있음을 알고 그분 안에서 평안히 기대는 것입니다. ③ 기원: 필요할 때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도우심에만 기대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④ 감사: 모든 좋은 것에 대해 찬양으로 돌려드리는 마음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을 삶 전체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내 앞에서'라는 표현은 이 죄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바람난 아내가 정부를 남편 앞에 데려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속 가장 은밀한 배신의 생각까지 보십니다.

1. 하나님의 뜻만이 최고의 자리에
2. 드릴 것 넷: 양모·신뢰·기원·감사
3. 이 넷 중 무엇도 다른 존재에게 넘기지 말라
4. '내 앞에서' = 남편 앞에 정부를 데려온 격

1계명 본문.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

²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³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제2계명: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4-5) ^

17. 하나님을 형상으로 묘사하는 잘못 ^

1계명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를 말했다면, 2계명은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예배받기 원하시는가”를 말합니다. 목적은 정당한 예배가 미신적인 의식으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유치하게 상상하고 육신적인 의식을 지어내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철저히 버리고 그분이 직접 세우신 신령한 예배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계명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파악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을 감각의 대상으로 만들거나 형상으로 묘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어떤 형상이든 신앙의 이름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해·달·별 같은 천체와 새를 가리킵니다. 이 표현을 천사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칼빈이 굳이 짚고 넘어갑니다. 1권에서 이미 다루었듯이, 사람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본성과 정반대이며, 우상이 서는 순간 참된 신앙은 썩습니다.

1. 1계명: 누구를? / 2계명: 어떻게?
2. 하나님을 형상으로 묘사하지 말라
3. 어떤 형상도 예배하지 말라
4. 하나님이 정하신 신령한 예배를 따르라

출애굽기 20:4-5

2계명 본문

- 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 ⁵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신명기 4:17

하늘에 있는 것으로 새를 언급한다. '하늘의 것'의 범위를 확인한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신명기 4:19

해·달·별을 언급한다. 같은 역할이다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18. 2계명에 붙은 경고

이 계명에 붙은 경고는 우리의 게으름을 흔들어 깨웁니다. 칼빈은 “질투하는 하나님” 앞에 놓인 '하나님(엘)'이라는 이름이 '능력'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보고, 본문 번역에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함께 살렸다고 설명합니다. 경고에는 세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은 멸시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둘째, '질투하는 하나님'은 어떤 동업자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셋째, 그분의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갚으시고, 그 보응은 자손에게까지 미칩니다. 자손도 조상의 불경건을 따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먼

우리에게 순결을 요구하십니다. 남편이 순결할수록 아내의 외도에 더 분노하듯이, 우리가 예배를 다른 데로 돌리거나 미신으로 더럽히면 하나님은 특히 크게 질투하십니다. 그것은 혼인 서약을 깨는 데서 그치지 않고 침실에 다른 남자를 들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1. 하나님의 능력은 멸시를 허락하지 않는다
2. '질투' = 동업자를 허락 않는 신실한 남편
3.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
4. 경고는 자손까지, 은혜는 천 대까지

출애굽기 20:5-6

2계명에 붙은 경고와 약속

⁵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⁶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에베소서 5:29-32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혼인과 같다. '질투'를 이해하는 틀이다

²⁹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³⁰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³¹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³²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레미야 (장절 미상 — 원문 판독 불가)

유대인의 배도를 간음으로 탄식하는 본문

호세아 2:4 이하

이스라엘의 배도를 음행으로 꾸짖는다

⁴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이사야 62:4-5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혼인으로 그린다 (참조)

⁴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헐시바라 하며 네 땅을 ?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⁵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호세아 2:19-20

하나님이 백성과 혼인을 맺으신다

¹⁹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 들며 ²⁰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19. "아버지의 죄를 자손 삼사 대까지"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남의 죄로 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고, 하나님도 직접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미친다는 말씀이 거듭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현세의 형벌로만 보고, 그런 형벌이 자녀의 구원에 도움이 될 때가 많으니 부당하지 않다고 해결하려 합니다. 칼빈은 그 말 자체는 맞다고 인정합니다. 히스기야의 죄로 그 자손이 포로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해를 끼친 바로와 아비멜렉의 집안이 재앙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석이 아니라 문제를 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들은 현세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칼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너무 무거워서 악인 본인뿐 아니라 그 집안 전체에 임한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을 잃고 부끄럽게 살고, 아들도 버림받아 같은 멸망의 길을 걸으며, 손자와 증손도 그 길을 따른다.

1. 걸으로는 에스겔 18장과 충돌하는 듯 보임
2. '현세 형벌일 뿐'이라는 해결은 회피

4. 자손도 같은 불경건의 길을 걷게 됨

에스겔 18:20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지지 않는다. 문제를 제기하는 구절이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민수기 14:18

아버지의 죄를 자식 삼사 대까지 갚으신다. 반대편 구절이다

여호와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출애굽기 34:6-7

같은 내용을 담은 구절

⁶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⁷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예레미야 32:18

아버지의 죄를 후손의 품에 갚으신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지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이사야 39:6-7

히스기야의 죄로 자손이 포로가 된다. 현세 형벌의 예다

⁶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둔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창세기 12:17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린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창세기 20:3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신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창세기 20:18

아비멜렉의 집에 재앙이 내린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달으셨음이더라

20. 후손에게 미치는 형벌의 참뜻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맞을까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사람들은 본성 전체가 정죄 아래 있으므로 멸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불의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부당하게 미워하셔서가 아닙니다. “왜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은혜의 도움을 받지 못하느냐”고 따질 근거는 없습니다. 에스겔 18장의 배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고난 속에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을 들먹였습니다. 자기들은 죄가 없는데 조상 탓에 벌을 받는다는 불평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아니라고, 너희는 너희 죄로 벌받는다고 답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자손에게서 은혜와 진리의 빛과 구원의 도움을 거두시는 것은 조상의 악행에 대한 징조입니다. 그러나 그 자손이 세상에서 미행은 결코 미치지 못할 만큼 의의에 이르러

1. 멸망은 자기 불의 때문, 하나님의 부당함 아님
2. 이스라엘의 '신 포도' 속담은 핑계였다
3. 조상 때문에: 은혜가 거두어지는 것
4. 자기 때문에: 비참과 영원한 멸망

에스겔 18:20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각자 자기 죄로 심판받는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에스겔 18:2

'신 포도' 속담. 조상 탓을 하는 핑계를 보여 준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21.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반대로 하나님은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성경 곳곳에 나오고, “내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언약에도 담겨 있습니다. 경건한 집안의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은 거룩하게 양육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언약에 약속된 복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자에게는 위로이고 악인에게는 두려움입니다. 죽은 뒤에 후손에게까지 복과 저주가 미친다면,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물론 악인의 자손 중에 돌이키는 사람도 있고, 의인의 자손 중에 타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칼빈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의 선택을 묶어 버리는 영구 규칙을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몇 예만으로도 하나님이 죄에 진노하시고 경건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증거로 충분합니다. 형벌은 삼사 대, 자비는 천 대라는 대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 보여 주십니다.

2. 양육의 힘도 있지만 근본은 언약의 복
3. 예외가 있어도 하나님의 선택을 묶는 규칙 아님
4. 삼사 대 vs 천 대 = 자비가 훨씬 크다

신명기 5:10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반복된 약속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레미야 32:18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신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갇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지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창세기 17:7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에 담긴 약속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잠언 20:7

온전히 행하는 의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제3계명: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출애굽기 20:7)

 22. 제3계명의 바른 이해

칼빈은 지킬 것을 셋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든 그분의 위대하심에 걸맞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신비를 야망이나 탐욕이나 오락을 위해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셋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비방하지 말고 그분의 지혜와 의와 선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름을 경솔하게 쓰는 것도 악하니, 하물며 점술이나 저주나 주문에 쓰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특히 맹세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계명이 사람 사이의 정직을 다룬다고 보면, 둘째 돌판의 거짓 증언 금지(9계명)와 겹쳐 쓸데없는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 이 계명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거룩함을 지키시는 첫째 돌판의 계명입니다.

1.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위대함에 걸맞게
2. 말씀을 욕심·오락의 도구로 쓰지 말라
3.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지 말고 찬양하라
4. 특히 '맹세'에 관한 계명
5. 9계명과 다른, 하나님을 향한 계명

출애굽기 20:7

3계명 본문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5:11

3계명의 반복. 맹세에서 이름을 악용하지 말라는 경계와 연결한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23. 정당한 맹세

맹세란 내 말이 참임을 확인하려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모욕하는 저주는 맹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 하는 맹세는 오히려

그분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시고, 마음을 살피시며 숨은 것을 드러내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증언으로는 부족할 때, 특히 양심 속에 감춰진 일을 말할 때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노골적인 배신의 증거로 여기고 크게 진노하십니다.

1. 맹세 =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
2. 바른 맹세는 일종의 예배
3. 하나님 = 변치 않는 진리, 마음을 아시는 분
4. 다른 신으로 맹세 = 배신

이사야 19:18

애굽에서 여호와로 맹세하는 성읍들. 맹세가 신앙고백이 된다

그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사야 65:16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라

예레미야 12:16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백성 가운데 세워진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 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고린도전서 4:5

하나님은 숨은 것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이유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파단하지 말라 그가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레미야 5:7

신이 아닌 것으로 맹세했다는 책망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스바냐 1:4-6

여호와와 말감을 함께 두고 맹세하는 자들을 멸하신다

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알을 그
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⁵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⁶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24.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맹세가 예배여야 한다면, 거기에 모욕이나 멸시가 섞이지 않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을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게서 진실하심을 빼앗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거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진실하심을
빼앗는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백하라”고 한
말도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의 바리새인들도 같은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맹세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맹세
표현들(“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에는
내가 거짓말하면 벌을 내려 달라는 뜻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1. 거짓 맹세 = 하나님을 거짓의 보증인으로 만들

3. 맹세에는 “거짓이면 벌하소서”가 포함

레위기 19:12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수아 7:19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백하라”. 진실 고백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임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요한복음 9:24

바리새인도 같은 표현을 썼다. 당시 맹세 관습의 증거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사무엘상 14:39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라는 맹세 표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사무엘상 14:44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를”이라는 맹세 표현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무엘상 2:9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열왕기하 6:31

같은 형식의 맹세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고린도후서 1:23

바울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른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로마서 1:9

바울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른다 (참조)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25. 쓸데없는 맹세

말이 사실이라도 쓸데없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 이름을 값싸고
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맹세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맹세는 꼭
필요할 때만 허락되고, '꼭 필요할 때'는 신앙이나 사랑을 위한 경우뿐입니다. 칼빈
당시 사람들은 오랜 관습 때문에 일상 대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쓰면서
그것을 잘못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것이 결코
가벼운 잘못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이 계명을 어기는 또 다른 방식은 하나님 대신
그분의 거룩한 종들, 곧 성인(聖人)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넘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

1. 참말이라도 쓸데없는 맹세는 이름을 값싸게 함
2. 맹세는 신앙이나 사랑을 위해 꼭 필요할 때만
3. 습관이 된 가벼운 맹세도 하나님 앞에선 죄
4. 성인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 = 영광을 넘김

신명기 6:13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라. 맹세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10:20

같은 명령의 반복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출애굽기 23:13

다른 신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히브리서 6:16

사람은 자기보다 큰 이를 가리켜 맹세한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히브리서 6:13

하나님은 더 큰 이가 없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26. 맹세를 금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이해하기

재세레파(어른 세례만 인정하고 국가·맹세 등에서 철저히 분리하려던 16세기 급진 개혁 운동)는 신중하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모든 맹세를 정죄합니다. 근거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마태복음 5:34)입니다. 칼빈은 그렇게 읽으면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의 원수로 만든다고 반박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맹세를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필요할 때 명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만 전하셨으니, 하나님이 스스로 모순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도는 율법을 풀거나 조이는 데 있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망가뜨린 참뜻을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거짓 맹세만 금했지만, 율법은 헛되고 쓸데없는 맹세도 금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죄하신 것은 맹세 자체가 아니라 헛된 맹세입니다. “도무지”라는 말은 '맹세하다'가 아니라 뒤따르는 맹세 형식, 곧 하늘·땅·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맹세를 꾸밉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직접 대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나 땅이나 세례로 맹세해도 결국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미신을 고치시는 말씀으로 보지만, 칼빈은 간접 맹세를 가볍게 여기는 궤변을 깨뜨리신 것으로 봅니다. 사람이나 죽은 자나 천사를 하나님 대신 부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이방인이 왕의 수호신으로 맹세하던 것처럼 거짓 신격화입니다. 야고보도 같은 의도로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만약 “도무지”가 모든 맹세를 금하는 말이라면, 바로 뒤의 “하늘로도, 땅으로도”는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1. 재세레파: 모든 맹세 금지
2. 칼빈: 율법이 허락·명령한 맹세를 주님이 뒤집지 않음
3. 주님이 금하신 것 = 헛되고 경솔한 맹세
4. “도무지”는 하늘·땅 등 간접 맹세 형식을 겨냥
5. 간접 맹세도 결국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맹세

마태복음 5:34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재세레파의 근거이자 칼빈이 해석하는 본문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마태복음 5:37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같은 본문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출애굽기 22:10-11

율법이 필요할 때 맹세를 명한다. 맹세가 정당하다는 근거다

¹⁰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¹¹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요한복음 10:30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다. 서로 모순될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0:18

아버지께 받은 명령대로 하신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7:16

내 교훈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5:34-35

하늘·땅·예루살렘으로 맹세하지 말라. 간접 맹세를 거냥한다는 근거다

3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5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야고보서 5:12

야고보가 같은 말씀을 같은 의도로 반복한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27. 공적인 맹세뿐 아니라 사적인 맹세도 허락됨

건전하게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정죄하신 것은 율법이 금한 맹세뿐이라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칼빈은 주님 자신도 필요할 때 맹세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고, 제자들도 그랬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꼭 필요할 때 맹세했고, 때로는 저주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맹세만 허락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리가 요구하는 맹세, 조약의 맹세, 군인의 맹세 같은 것이고, 바울의 맹세도 공적인 사역자의 맹세였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공적 맹세가 가장 안전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히브리서도 사람 사이의 다툼이 맹세로 끝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의도로, 진지하게, 절박한 사정 때문에 하는 사적 맹세까지 정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심판자'로 불러 판단을 구하는 것도 정당한데, 그보다 가벼운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더욱 정당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나를 배신자로 몰고 어떤 해명도 믿지 않아 명예가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 내 결백을 밝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 보아스, 오바다는 모두 사적인 개인으로서 맹세했습니다. 결론적인 규칙은 이렇습니다. 맹세는 경솔해서는 안 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형제에게 덕을 세우는 정당한 필요가 있을 때만 해야 합니다.

1. 주님·제자·바울도 필요할 때 맹세함
2. 공적 맹세는 가장 안전하다 (인정)

4. 규칙: 경솔하지 않게, 정당한 필요가 있을 때만

5. 정당한 필요 = 주의 영광, 형제의 덕

로마서 1:9

바울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른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고린도후서 1:23

바울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른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히브리서 6:16

다툼이 맹세로 끝난다. 공적 맹세를 인정하는 근거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사무엘상 24:12

다윗이 하나님께 판단해 달라고 한다. 사적 개인이 하나님을 심판자로 부른 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창세기 21:24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맹세. 반대자들은 공적 맹세로 본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창세기 26:31

이삭과 아비멜렉의 맹세

갔더라

창세기 31:53-54

야곱과 라반이 사적 개인으로서 한 맹세

- ⁵³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 ⁵⁴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룻기 3:13

보아스가 룻에게 혼인 약속을 맹세로 확증한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열왕기상 18:10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맹세한다. 경건한 개인의 맹세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8-10) 

 28. 전체적인 이해 

이 계명의 의도는 우리 자신의 욕구와 행위에 대해 죽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그 묵상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다른 계명과 성격이 달라서 설명 순서도 조금 다릅니다. 초기 교부들은 이 계명을 '예표'라고 불렀습니다. 한 날을 겉으로 지키는 부분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른 예표들과 함께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이것이 맞지만 절반만 다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 담긴 세 가지를 짚습니다. 첫째, 영적인 안식입니다. 신자는 자기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둘째, 정해진 날입니다. 함께 모여 율법을 듣고 예식을 행하거나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며 경건을 훈련하는 날입니다. 셋째, 휴식입니다. 종들과 다른 사람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쉬게 하려는 것입니다.

1. 핵심: 내 일에 죽고 하나님 나라를 묵상
2. 교부들: 안식일은 예표 → 맞지만 절반
3. ① 영적 안식: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4. ② 정한 날: 모여서 말씀 듣고 경건 훈련
5. ③ 휴식: 남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의 쉼

출애굽기 20:8-10

4계명 본문. 종·가축·객까지 쉬게 하라는 내용이 셋째 요소의 근거다

⁸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⁹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¹⁰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29. 안식일 계명의 중요성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안식을 보여 주는 그림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다른 계명보다 유난히 엄격하게 명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신앙이 무너졌다고 말할 때마다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꾸짖었습니다. 마치 안식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는 '표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이 내 뜻을 죽이는 데 있다면, 겉의 표징(일을 멈춤)과 속의 실체(내 뜻을 멈춤)가 꼭 맞아떨어집니다. 우리는 내 뜻을 하나님께 드리고,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내가 고안한 모든 일을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1. 가장 중요한 것: 영적 안식의 그림
2. 유난히 엄격한 명령, 선지자들의 거둬진 책망
3. 안식일 =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표징
4. 겉의 '일 멈춤' = 속의 '내 뜻 멈춤'

민수기 15:32-36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의 처벌. 계명의 엄격함을 보여 준다

³²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³³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³⁴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³⁵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³⁶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출애굽기 31:13 이하

안식일을 지키라는 엄한 명령 (참조)

¹³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

출애굽기 35:2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는 명령 (참조)

옛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을 더럽힌 이스라엘을 꾸짖는다

¹²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¹³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에스겔 22:8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책망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에스겔 23:38

같은 책망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예레미야 17:21

안식일에 짐을 지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예레미야 17:22

같은 명령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예레미야 17:27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스조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면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56:2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복되다. 칭찬의 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느헤미야 9:14

거룩한 안식일을 알리셨다. 안식일 계시를 특별히 높인다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출애굽기 31:13-14

안식일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표징이다

¹³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¹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31:16-17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이자 표징이다

¹⁶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¹⁷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옛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에스겔 20:12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히브리서 13:21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영적 안식의 내용이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4:9

하나님 백성에게 남은 안식. 영적 안식의 목적지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30. 일곱째 날

유대인들은 일곱 날 중 하루를 완전히 쉬는 것으로 이 계명을 지킨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친히 본을 보이셔서 그들이 더 경건하게 그날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칼빈은 숫자 7의 의미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을 조심스럽게 제시합니다.
첫째, 성경에서 7은 완전을 뜻하므로 영원함을 나타내려고 택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도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로 창조 이야기를
맺습니다. 둘째, 7이라는 숫자로 안식이 마지막 날까지는 완성되지 않음을
보이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안의 안식을 시작하고
날마다 그 안에서 나아가지만, 육체와의 싸움이 계속되므로 안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실 때에야 완성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마지막 날의 완성된 안식을 미리 그려 보여 주고, 평생 그 안식을 묵상하며 사모하게
합니다.

1. 창조 때의 안식이 일곱째 날의 본
2. 해석 1: 7 = 완전. 영원을 나타냄

4. 지금은 안식을 시작했지만 싸움 중

5. 일곱째 날 = 완성될 안식의 예고편

창세기 2:3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일곱째 날의 근거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사야 66:23

매 안식일마다 모든 육체가 경배하리라. 안식의 완성에 대한 예언이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아와 예배하리라

고린도전서 15:28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실 때. 안식이 완성되는 시점이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31. (앞부분) 안식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숫자 해석이 너무 섬세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더 단순하게 이해해도 좋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날을 정하셔서, 백성이 율법이라는 초등교사(어린 학생을 가르치고 이끄는 교사)의 지도 아래 영적 안식을 계속 묵상하게 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하필 일곱째 날인지도 여러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아셨기 때문이라거나, 열심을 일으키시려고였거나, 창조주의 본을 따르게 하시려고였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어떻게 해석하든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신비, 곧 우리가 모든 수고를 벗고 영원히 안식하게 된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어서 칼빈은 목의 노동만 멈추면 다 지켰다고 여기

1. 숫자 해석이 어렵다면 단순하게 이해해도 됨
2. 율법(초등교사) 아래 영적 안식을 묵상하게 하심
3. 왜 일곱째 날인지는 해석이 갈려도 무방
4. 지킬 핵심: 영원한 안식의 약속

오해와 반론

용어

도덕법

의식법(제사·정결 규정)이나 시민법(이스라엘 국가법)과 구별되는, 시대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담은 법으로, 칼빈은 십계명을 그 요약으로 본다.

두 돌판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으로, 칼빈은 첫째를 '하나님 예배', 둘째를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나눈다.

제유법

대표적인 것 하나로 전체를 가리키는 말하기 방식이다. '살인'이라는 말로 분노와 미움까지 가리키는 것이 그 예다.

예표

구약의 사건이나 제도가 앞으로 올 영적 실체를 미리 보여 주는 그림이다. 출애굽은 죄에서의 해방,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의 예표다.

양모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려 드리는 존경과 예배로, 양심을 하나님의 법에 굴복시키는 것까지 포함한다.

기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에만 기대는 마음의 습관이다.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신 방식으로, 사람이 지어낸 대상이나 의식에 기대는 잘못된 신앙이다.

맹세

내 말이 참임을 확인하려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으로, 바르게 하면 일종의 예배가 된다.

재세례파

16세기 급진 개혁 운동으로, 어른 세례만 인정했고 맹세·공직 등에서 철저히 분리되려 했다.

초등교사

개역 성경의 '몽학선생'으로, 어린 학생을 성숙할 때까지 가르치고 이끄는 교사다. 칼빈은 그리스도 이전의 율법을 이렇게 부른다.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 주고, 내 무능을 드러내 하나님의 긍휼로 달려가게 한다.
- 십계명은 겉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겨냥한다. 각 계명은 목적에 따라 금지와 명령 양쪽으로 넓게 읽어야 한다.
- 하나님 예배(첫째 돌판)가 모든 의의 기초다. 그것이 무너지면 이웃 사랑도 서지 못한다.
- 1~4계명은 하나님만, 그분이 정하신 방식으로, 그 이름을 높이며, 내 일을 멈추고 그분 안에서 쉬라고 요구한다.
- 이 모든 요구는 “너를 해방한 네 하나님”이라는 은혜의 머리말 위에 서 있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칼빈 『기독교강요』 (생명의말씀사)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https://www.youtube.com/@빛다방)